

한전 1분기 영업적자 6천299억원 ‘사상 최악’

전기판매수익 감소·전력구입비 상승 영향
신기술 적용 공사비 절감 등 재무개선 박차

한국전력은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1분기 영업적자가 6천299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식했다. 한전은 지난해 1분기의 영업손실 1천276억원보다 적자 폭이 5천23억원 더 벌어지며 2011년 분기별 연결기준 실적을 발표한 이래 1분기 기준 최악의 성적을 낸 셈이다. 올해 당기순손실은 7천6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505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5천107억원 증가했다.

자회사가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연료비와 민간발전사로부터 사들인 구입전력비 등이 포함된다. 한전은 “올해 겨울 비교적 포근한 날씨로 인해 전기판매수익이 줄었으나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는 늘어난 것이 실전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겨울은 혹한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한 데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겹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았던 반면, 올해 겨울은 이런 수요가 사라지면서 전기판매량이 1.4% 줄었다. 이에 따른 전기판매수익 감소액은 약 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전기 수요 감소는 민간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구입비를 0.7% 정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전력구입비 중 LNG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7.0%에서 올해 1분기 35.9%로 소폭 감소했다. 또 대규모 계획예방정비 종료로 원전 이용률이 종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발전 자회사의 석탄발전량이 줄면서 연료비는 전년 대비 7.7%, 금액 기준으로는 약 4천억원을 절감했다. 하지만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국제 연료가격이 오르면서 전력시장가격이 크게 상승해 전력구입비가 7천억원(13.7%) 가까이 늘어나 절감분을 상쇄해버렸다. 발전용 LNG 공급단가는 국제유가

를 토대로 결정된다. 국제유가가 LNG 가격에 적용되는 데는 약 5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3분기의 국제유가 시세가 반영됐다. 지난해 3분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74.3달러로, 전년 50.5달러보다 47.1% 올랐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국제유가 하락이 2분기 실적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다시 유가와 환율이 오르는 등 대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설비 안전은 강화하되 신기술을 적용해 공사비를 줄이는 등 재무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정인채 새천년건설 회장 ‘CEO대상’

안전시공 경영철학 실천...한국경영사학회 17일 시상

(사)한국경영사학회는 ‘제22회 CEO대상’ 수상자로 정인채 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목포해양대 기관공학과 소강당에서 상을 받는다. 한국경영사학회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엔지니어에서 전문경영인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2001년 창업 이후 꾸준한 매출 신장을 통해 중견기업을 이뤘다. 토목분야의 학술활동과 교류를 통해 건설기술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완벽시공과 안전시공의 경영철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문경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 평화광장 조성’과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식 유치원 설립 기부’ 등 여러 가지 사회봉사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사학회는 설명했다. 최근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메인로프의 미세한 풀림현상을 발견하고 수십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메인로프를 교체한 강단과 안전시공에 대한 철학이 모든 경영자의 귀감이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전남대총동창회장을 역임했고 2016년 전남대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은성기자



“올 여름엔 에어써클레이터” 때론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일렉트로마트에서 모델들이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출시한 에어써클레이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보 ‘공정무역 실천기업’ 추진 선언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1일 서울숲에서 개최된 ‘2019년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 실천기업’ 추진을 선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신보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기업 기관 중 처음으로 ‘공정무역 실천기업’ 추진을 선언함으로써 사회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이번 선언을 통해 ▲공정무역 제품 사용 확대 ▲공정무역의 필요성 홍보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공정무역 기업 지원 강화 등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실천의지를 밝히고, 기관운영 전반에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 공정무역의 대중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후 이러한 추진노력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실천기업’으로 최종 인증받게 된다. 조경식 신용보증기금 이사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신보는 윤리적 소비를 전사적으로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공정무역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4월 수출물가 0.5% 상승...지난해 7월 이후 최고

환율·국제유가 상승 여파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수출입물가가 나란히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물가는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낙폭이 다시 커졌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9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2010년=100·원화 기준)는 83.48로 한 달 전보다 0.5% 올랐다. 수출물가는 2월과 3월 각각 0.2% 상승하다 지난달 상승세가 커졌다. 이번 오름

폭은 지난해 7월(2.5%) 이후 가장 크다. 4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40.95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23원 올랐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6.0% 상승한 영향이다. 공산품 수출물가는 석탄 및 석유제품(4.6%) 위주로 오르며 0.5% 상승했다. 농림수산물 수출물가는 0.1% 올랐다. 세부 품목을 보면 휘발유(10.7%), 경유(3.8%)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국제유가 상승에 정제유 수출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품 중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 수

출물가는 0.7% 내렸다.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수출물가는 9.9% 내리며 9개월째 하락했다. D램 수출물가 하락 폭은 지난 1월(1.4.9%), 2월(6.9%), 3월(5.2%)로 넘어가며 줄어들었으나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D램과 플래시메모리, 시스템반도체를 합한 반도체 수출물가는 5.2% 내리며 전월(3.4%)보다 낙폭을 키웠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가 반도체 경기 저점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데이 경제



광주우체국 ‘가정의 달’ 행복나눔 실천

광주우체국은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광주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직원 성금을 모아 동구에 위치한 광주일맥원,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세제 및 화장지 등 생활용품과 진공청소기, 드라이 등 각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복지시설 아동들과 어울리는 볼런테어먼트 위문활동을 펼쳤다. 박효열 광주우체국장은 “평소 복지사각시대에 놓인 지역 내 불우이웃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광주은행, 문정인 특보 초청 특강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 분석과 향후 전망’의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강연은 광주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주요내용을 다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재 틀 안에서 남북협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전남농협, 사업추진 전략회의 개최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지역 농·축협 신용상무 및 지점장과 시군 농정지원단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호금융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상호금융은 농촌지역에 만연된 악성 고리채를 해소하기 위해 1969년 150개 농협에서 시작해 1976년 전국 농협이 전면 실시하게 됐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가부채경감대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익증대와 고충해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상호금융 50주년이후 100년을 함께 하는 사업추진 실천결의 대회를 통해 ‘다 함께! 더 멀리! 감동을 주는 100년 전남 상호금융’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동수기자

오천경매

투자제 관한 모든 상담 010-3605-5000

급매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매매-7억 5천만원(일시불) 문의. 010-6834-7400

급매 전문

김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썬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경매투자자

오천경매 010-3605-5000